

화학제품 수출가격지수 14.5% 상승

한국은행, 2003년 2/4분기 이후 상승 ... 전체 수출단가 2.4% 올라

2003년 국내 화학제품 및 석유제품 수출단가가 2002년보다 높아지면서 전체 수출단가 및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단가를 크게 웃돌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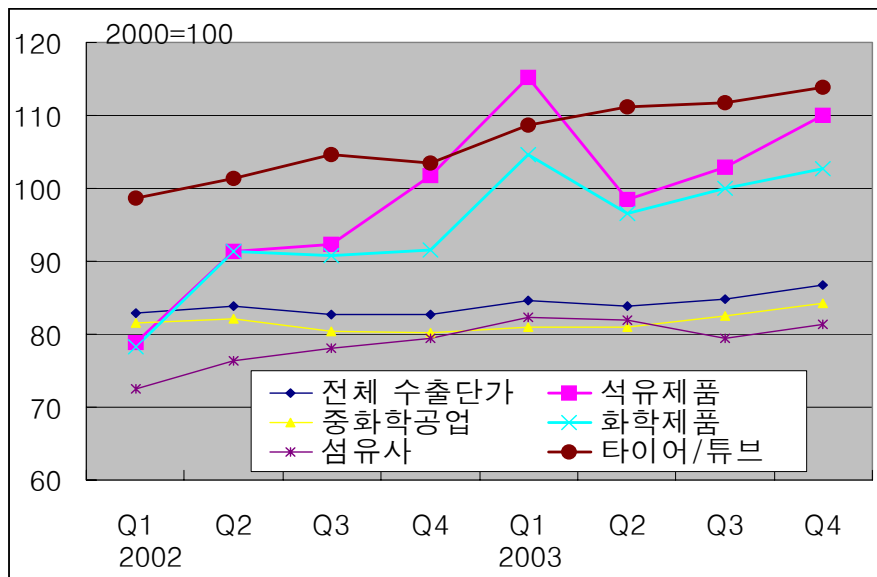
한국은행에 따르면, 2003년 국내 화학제품 수출단가 지수(2000년=100)는 100.8로 2002년 88.0보다 14.5%, 석유제품도 2002년 91.8에서 2002년 106.8로 16.3%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.

화학제품 및 석유제품의 수출단가는 2003년 초 큰 폭으로 오르다 미국-이라크 전쟁 발발 직후 하락했으나 3/4분기와 4/4분기에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철강제품(14.1%), 기계류 및 정밀기기(3.9%) 등과 함께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가격 상승을 주도했다.

2003년 화학제품 수출단가 지수는 1/4분기 104.6에서 2/4분기 96.6, 3/4분기 100.0, 4/4분기 102.7을 나타냈으며, 같은 기간 석유제품은 115.1, 98.4, 102.8, 110.0을 각각 기록했다.

타이어 및 튜브 제품의 수출단가 역시 2002년 평균 102.0에서 2003년 111.4로 9.2% 상승했는데, 분기별로는 108.6, 111.1, 111.8, 113.9로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다.

수출단가지수 등락을 추이



한편, 2003년 4/4분기 전체 수출단가는 철강제품, 기계류 및 정밀기기 등을 위주로 상승세가 확대됨에 따라 전분기보다 2.2% 상승했다.

정보통신기기(-1.0%)가 소폭 하락했으나 기계류 및 정밀기기(5.7%), 철강제품(3.0%), 반도체(2.3%) 등의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전분기대비 2.2% 높아졌다.

경공업제품은 섬유사, 직물, 의류 등 섬유류가 상승으로 반전되고, 금(6.8%), 타이어·튜브(1.9%) 등의 상승세가 확대돼 3/4분기보다 1.2% 상승했다. <조인경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4/21>